

**Publication: Maeil Business Newspaper**  
**Date: March 12, 2008**  
**Headline: Art Industry Busy Exploring Opportunities**

The art market has received a direct blow from the economic recession. However, the art industry is making a silent move. That is, it is exploring opportunities amid recession by reorganizing the market to be based on real end users, expanding the market base, and implementing VVIP marketing strategies. Among other banks, SC First Bank will host an exhibition of young Korean artists, titled 'Moon Generation' in May. During the exhibition, the bank provides various programs to VIP customers such as lectures on Korean contemporary art.

## 미술계는 지금 暗中摸索

<영광모색>

### 중저가 작품 거래·경매 활발 VVIP상대 미술마케팅에 총력

2006-2007년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미술시장은 경기침체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불황 속에서도 미술계는 소리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과 저변 확대, 그리고 VVIP 마케팅 등을 통해 불황 속 암존모색(暗中摸索)을 하고 있다.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저가 공격  
미술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면서 감성이나 인테리어 목적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작품을 구입하려는 컬렉터가 늘면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경매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서울옥션이 지난 2월 개최한 기획 경매 '나의 첫 컬렉션(My first collection)'은 226점 중 189점이 낙찰돼 83.6% 낙찰률을 보였다. 이 경매에서는 미술 초보자도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100만-300만원 정도 작품을 많이 내놓았다.

K옥션도 제1회 신진작가 기획전 올 오는 17-25일 청담동 본사 지중 전시장에서 연다. 신진작가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김지혜 박기림 정진서 황경미 씨 등 4명의 작품 20여 점이 나온다. 가격대는 100만-400만원이다.

◆실수요자 위주 시장 재편

불황이 계속되면서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투기세력이 미술관에서 자취를 감췄다. 2006-2007년 미술시장 호황기에 수억 추구를 목적으로 미술시장에 참여했던 세력들이 사라진 것이다. 당시 어우관 김종하 오지관 등 블루칩 작가의 연 수익률은 최소 100%에 달했다.

투기꾼이 사라진 자리는 실수요자들이 채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규 컬렉터가 늘고 있다. 미술시장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이들은 30대 전문직 종사자와 기업체 대표들로 이들의 작품 구입 목적은 감성과 실내 인테리어이다. 30대 젊은 컬렉터들은 투자 목적이 아닌 작품 소장 목적으로 주로 젊은 작가들이 100만원 미만 작품을 구입한다.

미술품 애호가인 조현제 카미컬 솔루션 대표(39)는 "예술적 가치에 대한 호기심과 작품 감상을 위해 미술품을 수집한다"며 "최근 들어 작품 감상 등 실수요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친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장동조 더컬렉션갤러리 대표도 "실수요 목적의 컬렉터들은 중저가의 젊은 작가 작품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설명했다.

### ◆VVIP 상대 미술 마케팅 활발

일반인에 비해 경기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최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VVIP 미술 마케팅이 활발하다. 불경기에도 미술품 구입에 돈을 쓰는 사람들은 경기 변화에 둔감한 최상류층이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5월 젊은 한국작가 그룹전인 '문 제너레이션'을 연다. SC제일은행은 전시 기간에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 현대미술을 주제로 한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서울옥션은 우수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정리회 향공견과 숙박권을 제공한다. 지난해 홍콩경매를 시작한 서울옥션은 자사 우수 고객들이 홍콩경매에 참가하는 데 권위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K옥션은 이달 말 '아르모코' 행사를 연다.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싱가포르 경매회사 라사버티의 다니엘 코필라 CEO가 방한해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시장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신성동 인터알리아갤러리는 VIP 고객들에게 프랑스식 고급 식사와 와인을 무료로 제공한다. VIP 고객들은 갤러리와 함께 있는 식당에서 대형 모니터에 나오는 오케라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또 원하는 고객은 무료로 미술경과를 수강할 수 있다. **김승훈 기자**